

제6회 中央文化大賞藝術大賞 수상

徐廷柱 등문

末堂 徐廷柱(39中佛) 동문은 이 세계紀行시집「西」으로 1978년 10월 20일 中央日報에 발표되어, 민족문화추진회와 동양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中央文化大賞「藝術大賞」을 수상했다.

40여년간의 詩作생활을 통해 5백여편의 詩集을 발표, 「한국의 詩」, 「한국의 詩」, 「한국의 詩」로 이미 명성이 높음. 徐 동문은 東國이 자랑하는 대문호로 손꼽히기도 하다.

「지금까지 6년 8권의 詩集을 펴낸 徐廷柱는 詩壇에서 40여년간의 詩作생활을 통해 5백여편의 詩集을 발표, 「한국의 詩」, 「한국의 詩」, 「한국의 詩」로 이미 명성이 높음. 徐 동문은 東國이 자랑하는 대문호로 손꼽히기도 하다.



40년 詩作生活, 詩壇상징적存在

인간심속에 숨겨진 意識表出

「보이지 않는 것」을 두루 표출해낸 徐廷柱는 대문호로 손꼽히기도 하다. 「지금까지 6년 8권의 詩集을 펴낸 徐廷柱는 詩壇에서 40여년간의 詩作생활을 통해 5백여편의 詩集을 발표, 「한국의 詩」, 「한국의 詩」, 「한국의 詩」로 이미 명성이 높음. 徐 동문은 東國이 자랑하는 대문호로 손꼽히기도 하다.

仁川市교육청 教育長 영전

평생 몰두없이 後進教育을



金濟東 <仁川市교육청 教育長>

金濟東(48세) 동문이 유장으로 영전되었다. 이 차분하게 후진교육의 발전을 꾀한 金濟東은 仁川市교육청 教育長으로 1978년 10월 20일 中央日報에 발표되어, 민족문화추진회와 동양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中央文化大賞「藝術大賞」을 수상했다.



李範宣 <小説家·韓國外國語大교수>

大韓民國 文化藝術大賞 수상 「말」 등 소설 1백편 발표

李範宣(49세) 동문은 유장으로 영전되었다. 이 차분하게 후진교육의 발전을 꾀한 李範宣은 仁川市교육청 教育長으로 1978년 10월 20일 中央日報에 발표되어, 민족문화추진회와 동양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中央文化大賞「藝術大賞」을 수상했다.

徐廷柱는 東國이 자랑하는 대문호로 손꼽히기도 하다. 「지금까지 6년 8권의 詩集을 펴낸 徐廷柱는 詩壇에서 40여년간의 詩作생활을 통해 5백여편의 詩集을 발표, 「한국의 詩」, 「한국의 詩」, 「한국의 詩」로 이미 명성이 높음. 徐 동문은 東國이 자랑하는 대문호로 손꼽히기도 하다.



吳應煥 <住宅公社 支社長>

住宅公社 全南지사장 轉任 言行에 가식없는 言論界 출신

吳應煥(47세) 동문이 大韓住宅公社 全南支社長으로 1978년 10월 20일 中央日報에 발표되어, 민족문화추진회와 동양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中央文化大賞「藝術大賞」을 수상했다.

自動車情報전시 韓國대표로

유립등 20개국 同業界시찰도

池泰河 <서울자동차協 이사장> <吾星工業社 대표>

池泰河(48세) 동문은 유장으로 영전되었다. 이 차분하게 후진교육의 발전을 꾀한 池泰河은 仁川市교육청 教育長으로 1978년 10월 20일 中央日報에 발표되어, 민족문화추진회와 동양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中央文化大賞「藝術大賞」을 수상했다.

保證基金 전주支店長으로

치밀한 성격에 推進力원속

鄭求徹 <信用保證基金 支店長>

鄭求徹(45세) 동문은 유장으로 영전되었다. 이 차분하게 후진교육의 발전을 꾀한 鄭求徹은 仁川市교육청 教育長으로 1978년 10월 20일 中央日報에 발표되어, 민족문화추진회와 동양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中央文化大賞「藝術大賞」을 수상했다.

同門動靜

無順·敬稱略

近況이 궁금하신 분은 본문을 참조하십시오.

榮進·轉輔

宋錫球(64商學) 仁川支店長으로 영전. 김승우(63經濟) 仁川支店長으로 영전. 김승우(63經濟) 仁川支店長으로 영전.

國民銀行

심사 2부장 金天壽
감사실검사역 朴泳鎬
쌍문동지점장 鄭昌濬
성산동지점장 鄭觀泳
혜화동지점장 鄭在栢
돈암동지점장 金鎭億
송의동지점장 李鍾茂
중앙동지점장 李鍾范
안동지점장 李在寧
길동지점장 薛鐸

教授動靜

宋錫球(64商學) 仁川支店長으로 영전. 김승우(63經濟) 仁川支店長으로 영전. 김승우(63經濟) 仁川支店長으로 영전.

大韓民國文學賞 우수상

吳學榮(63國文) 동문은 유장으로 영전되었다. 이 차분하게 후진교육의 발전을 꾀한 吳學榮은 仁川市교육청 教育長으로 1978년 10월 20일 中央日報에 발표되어, 민족문화추진회와 동양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中央文化大賞「藝術大賞」을 수상했다.

農協同組合

지부장 禹鍾晚
서울시조합 중부지점장 白性鉉
강원도지부 연수원장 許良道
경기도지부 인천지소장 宋殷起
서울시조합 성북지소장 沈甲植
신용보증부 金日勳

劉基天(70行院) 동부인 산림청차장으로... 山林廳次長으로 昇進발탁 中央·地方관서 고루거처와



劉基天 <山林廳次長>

沈燦燮(73行院) 동부인 韓國道路公社 理事로 취임했다. 원만한性品, 建設部관리 지내



沈燦燮 <韓國道路公社理事>

金正雄(63法學·변호사) 동부인 대학제 6尺巨驅에 일처리능력 있어 大韓體育會 신임理事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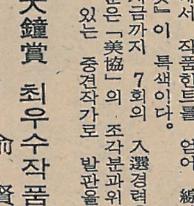
金正雄 <辯護士>

金昌熙(75行院·모교미술교과) 동부인 入選7回의 중견작가 활약 加을國展조각부분大賞 차지



金昌熙 <모교美術科교수>

俞賢穆(49전문·모교演說科) 동부인 大鐘賞 최우수작품監督賞 光州地法 判事로 榮轉되어



俞賢穆 <判事>

東國의傳統 <27>

論著를 中心으로 整理해본 1950년대, 시련과극복

1953년 2월의 東國의傳統... 金龍培教授의 東國大學校의 創設과 金龍培教授의 東國大學校의 創設과 金龍培教授의 東國大學校의 創設과

政治的인 힘의 權限을 如何로 行使하는가... 經濟力이라고도 할 수 있는 社會力의 如何로 行使하는가

金龍培教授가 主筆하여 50年代의 東國의傳統... 金龍培教授가 主筆하여 50年代의 東國의傳統... 金龍培教授가 主筆하여 50年代의 東國의傳統

東西洋철학에 佛敎學가미 東洋철학... 金龍培·金炳奎·韓相璉등이 主軸 西洋철학... 鄭宗·金奎榮·尹明老등을 꼽아

金龍培교수는 中國哲學史의 研究에 50년대 이후에 佛敎學의 研究에 50년대 이후에 佛敎學의 研究에 50년대 이후에 佛敎學의 研究에

金昌熙(75行院·모교미술교과) 동부인 入選7回의 중견작가 활약 加을國展조각부분大賞 차지

俞賢穆(49전문·모교演說科) 동부인 大鐘賞 최우수작품監督賞 光州地法 判事로 榮轉되어

許永會(58·政治) 동부인 仁川市中區 中央에 위치한 判事로 榮轉되어

尹汝達(68法學) 동부인 光州地法 判事로 榮轉되어

金萬淵(62政治) 동부인 釜山支廳市 企劃담당官에 榮轉

許永會(58·政治) 동부인 仁川市中區 中央에 위치한 判事로 榮轉되어

尹柱德(食工科) 동부인 仁川市中區 中央에 위치한 判事로 榮轉되어

李春桂(土木科) 동부인 仁川市中區 中央에 위치한 判事로 榮轉되어

會同不變永久 단결 韓國商業銀行 第一銀行 朝興銀行 韓國產業銀行 永日 永光 永泰 永和 永興 永盛 永昌 永泰 永和 永興 永盛 永昌

